



여대생이 경험한 여성의 의미

여 정 희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 여성들은 오래 전부터 남아선호사상, 가부장제, 성차별주의, 성 고정관념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대부분이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았으며, 여성은 안사람, 남성은 바깥사람으로 여길 만큼 구분이 확실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와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식과 남편을 위한 자신의 희생은 당연하며, 이를 보람으로 여겼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회와 문화는 남성중심이 되었고,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성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물론 최근 들어 급속한 사회 발전과 교육기회의 확대로 전통적인 가치 체계의 다원화가 나타났다고 하나 성에 있어서의 변화는 주로 성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즉 성의 개방화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사회적인 성에 있어서의 변화는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여성주의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전통적인 성역할관의 변화, 남녀평등 의식 증가, 사회민주화 등으로 여성들의 의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남성의 경우는 아직 전통적 가치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남성교사는 여성교사보다 경직된 성 고정관념을 가지며(Hwang, 1988; Park, 1978),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고(Lee, 1997), 중년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성에 대해 더 전통적임(Seo와 Oh, 2000)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문화내 존재하는 대학은 사회의 소규모 모형으로 한국의 성에 대한 역할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선망하며, 대학생이 된 후 고등학교 시절까지 억제되었던 남녀간의 활동에 자유로움을 느끼며, 남녀 서로에게 많은 관심과 적극성을 띄게 되고, 스스로 대학의 주인이 되어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남녀 공동체 생활에서 여학생들은 차츰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남학생들로 인해 자신들의 활동이 억제됨을 알게 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 가치, 역할 갈등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자신의 성에 부합된 성역할을 발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물론 성역할 발달은 아동 초기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며, 부모의 양육태도, 교육, 대중매체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지만 성역할 발달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제인 만큼 지금이 올바른 성역할 형성을 위해 노력할 때이며, 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세대인 여대생이 경험한 여성의 역할, 의미, 가치 등은 어떠하며, 예전의 우리 어머니들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연구하여, 앞으로 당당한 여성으로써 현시대를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이 경험한 성에 대한 생각, 의견, 가치관, 태도 등을 대상자의 관점에서 의미를 규명하여 여성에 대한 올바른 정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요어 : 여성, 현상학

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투고일: 2002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03년 2월 8일

자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여대생들이 경험한 여성의 의미를 파악함이다.

연구 방법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J시에 거주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시행하였으며, 현상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어 자료가 포화될 때를 기준으로 참여자의 수를 마감하였다. 참여자의 수는 10명이었고 자료수집 전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목적 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고, 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모두 미혼이었으며, 연령은 21세~24세이었고, 1학년이 1명, 2학년이 3명, 3학년이 1명, 4학년이 5명이었다.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2월부터 3월까지였으며,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하였으며, 면담장소는 참여자가 원하는 곳으로 하여 이야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학교, 참여자의 집, 교수연구실 등 조용한 분위기와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곳이면 어디나 이용하였다.

우선 첫 번째 만남은 면담자와 참여자간의 친밀감을 갖기 위한 자리로 참여자의 주변이야기와 학교생활이야기를 주로 하였고 연구주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만남의 목적은 참여자와 공감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통의 면담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구주제에 관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면담 도중에 면담자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으며 이것이 참여자의 선입견으로 작용할 위험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연구주제에 관한 면담을 주로 하였다. 먼저 첫 번째 만남 이후 그 동안의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그 다음 연구주제에 관한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이야기 도중 면담자의 설명은 되도록 삼갔으며, 참여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화내용과 현장 노트의 중요성을 참여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으며, 면담 후 즉시 녹음된 내용을 기록하여 면담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면담시 사용된 주된 질문내용은 '여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성이란 무엇인가' '여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등이었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30분에서 1시간이었으며, 면담횟수는 2회였으며, 자료분석 중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면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료분석

현상학적 방법 중 Giorgi가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면담 후 녹음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현장노트를 이용하여 무언의 행동들을 기술한 내용에 추가하였다. 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주의깊게 읽었다.
- 기술된 내용에서 여성의 의미와 관련된 의미있는 절이나 문장을 추출하였다
- 의미있는 절이나 문장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참여자의 의미가 같은 내용을 묶어 참여자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로 분류하였다.
- 그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관점에서 연구자가 이해한 언어로 중심의미를 규명하였다.
-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 나온 현상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상황적·구조적 기술을 만들었다.
- 상황적·구조적 기술을 통하여 전체 참여자의 체험을 기술하는 일반적·구조적 기술을 만들었다.

연구자 준비 및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자는 박사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받았으며, 질적 연구학회 및 워크숍 참여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에 대한 실제적 훈련을 거쳤고, 분만통증 경험, 분만의 의미 등 4편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논문을 쓰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현상학적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연구자가 가진 생각을 어떻게 판단중지 하느냐와 연구목적에 맞는 내용을 참여자로부터 잘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의미있는 내용을 잘 추출하였는지, 자료를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그들의 용어로 주제를 잘 명명하였는지 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여성의 의미에 대한 사전에 문헌고찰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연구자가 가진 여성의 의미를 괄호로 묶어 선입견을 배제하려 하였다. 또한 비구조적인 질문으로 연구자의 생각이 참여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에 동의나 판단을 덧붙이지 않았으며,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약간의 반응만을 보였고, 진술이 계속되지 않거나 내용이 연구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준비한 질문을 이용하였지만 자료에 신뢰성,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분석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문이 나거나 진술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참여자와 전화를 이용하여 다시 확인하였고, 원 자료에서 추출되어진 의미있는 내용과 주제분류는 여성학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영문학 교수와 함께 상호일치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여대생 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구조적 기술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자신의 생각은 아니지만 공감하는지를 알아보는 순환적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

참여자와의 면담자료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찾아 참여자의 의미를 파악하였고, 비슷한 의미를 함께 묶어 하나의 주제로 유목화하였으며, 이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심의미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3개의 주제와 5개의 중심의미가 추출되었으며, 이를 통합하여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제시하였으며, 상황적 구조적 상황으로부터 보편화된 일반적 구조적 상황을 기술하였다.

상황적 구조적 기술

● 참여자 1(한 ○○, 24세, 4학년)

참여자 1은 사회복지학 전공인 학생으로 성교육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내용은 주로 임신과 출산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을 여성형, 남성형, 양성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양성형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자신에 대해 100점에 70점 정도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여성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선택하였다. 어머니는 따뜻하고 편안하며,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주지만, 자식의 바른 길로의 안내를 위해 엄하게 대하는 강한 정신력을 가졌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역할은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며, 여성이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역할 차이로 인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사회에서 보면 어머니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여성의 신체적 구조 때문에 남성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억울하다 하였다. 사회에는 여성을 위한 많은 법들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고, 이것이 오히려 활동에 제약을 주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 참여자 2(문 ○○, 21세, 1학년)

참여자 2는 게임개발학 전공인 학생으로 성교육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내용은 월경, 남녀 성관계와 건강한 관계 유지에 대

한 것으로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양성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해 80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여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자식과 남편을 위해 열정을 쏟으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TV나 주변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성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등 여성의 차별은 쉽게 눈에 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차츰 여성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여성 자신도 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성에게도 사회적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며, 이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예방뿐 아니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적 인식에 상관없이 여성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선택하여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 참여자 3(이 ○○, 22세, 2학년)

참여자 3은 윤리교육학 전공인 학생으로 성교육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내용은 피임, 임신, 출산, 성폭행시 대처법, 낙태에 관한 것이었다. 양성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해 80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남존여비사상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것이 너무 많아 귀찮은 적도 많았고 할머니에게 항상 불만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사회는 오히려 예전의 성 차별주의를 상쇄시키려는 듯 여성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법을 제정하여 여성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여성으로 태어남에 만족하고, 다시 태어나도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였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성보다 특별히 나쁜 점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임신이 가능하고 어머니가 됨을 여성의 특성으로 보았고, 남성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 하였다. 그러나 여성이 자식을 낳았다고 여성만이 가정에서 양육을 책임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도 자신이 원한다면 사회적 일을 가지는 것도 무방하며, 더불어 여성은 남성이 가지지 못한 부드러움과 온순함, 적응력이 뛰어나 남성보다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진술하였다.

● 참여자 4(홍 ○○, 22세, 3학년)

참여자 4는 법학 전공인 학생으로 성교육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내용은 생식기구조, 임신, 출산, 성생활, 낙태에 관한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여성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해 85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여성이 여성다워야 함을 교육받아 여성은 다소곳해야 하고, 얌전해야 하며, 여성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감없이 수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이 여

성의 향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더불어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가진다면 더 할 나위가 없다고 하였다. 여성은 화장, 약세사리로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하지만 외형적인 미보다 내적인 미를 가진 여성이 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여성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과 사회 일을 동시에 갖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둘 다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모양처의 길을 택하여 남편과 지식을 위해 살고 싶고, 남성과 여성 각각은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결혼하여 한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 참여자 5(김 ○○, 21세, 2학년)

참여자 5는 전산통계학 전공인 학생으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내용은 생명의 신비, 낙태, 불임, 피임, 임신에 관한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양성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해 60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 차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표현하였다. 최근에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말로만 듣던 여성 차별을 실감할 수 있었고, 대학생활에서도 남성은 항상 우선시 되었고, 동적인 것은 남성이, 정적인 것은 여성으로 구분짓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은 많은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책에서 보면 여성은 주로 꽃과 유리로 비유되면서 예쁘고 어려서 상처를 잘 받는 존재로 표현하지만 그것이 여성을 모든 면을 다 대변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세상의 반은 여성으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남성만으로 가정을 이루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때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표현하였다. 여성의 분만을 남성이 대신해 줄 수 없듯이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할 일은 정해져 있지만(여성엔 출산과 양육, 남성엔 가정의 울타리) 이것이 남녀간의 차별이나 무시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여성 자신도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희망이나 능력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정한 역할에 충실하게 행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참여자 6(김 ○○, 21세, 2학년)

참여자 6는 통신공학 전공인 학생으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내용은 생식기구조, 임신, 출산에 관한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여성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해 70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성장하면서 어른들의 말씀 ‘집에 일찍 들어와라’ ‘항상 몸조심해라’ ‘당하면 여자 손해다’ 등을 들으면서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미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신체적 구조나 특성 때문에 생기는 차별 등을 경험하면서 어른들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남성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중요시 여기며,

심지어 시간제 구직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고, 지적 수준이나 능력 면에서 떨어짐을 인정하면서 남성과 경쟁하는 것보다 남성이 할 수 없는 일 즉 출산, 양육에 힘쓰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만약 사회적 일에 전념하고 싶으면 결혼은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진술하였다.

● 참여자 7(손 ○○, 23세, 4학년)

참여자 7는 간호학 전공인 학생으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내용은 생명의 신비, 성폭행시 대처법, 낙태, 임신에 관한 것이었으며, 여성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해 70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엔 차별하고 꼼꼼하지만 남성에게 많이 의존한다고 표현하였다. 자신의 어머니는 소극적이어서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자식의 대변자로서, 남편의 후원자로서 뒤에서 챙겨주고 돌보아 주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화목함이 어머니에게 달려있어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도 다른 직업 못지 않게 훌륭한 직업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도 좋지만 남성을 내조하며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진술하였다.

● 참여자 8(김 ○○, 23세, 4학년)

참여자 8는 해양산업공학 전공인 학생으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내용은 임신, 출산, 성폭행 대처법, 낙태에 관한 것으로 도움은 보통이었으며, 양성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해 95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랬고, 책이나 주위사람들이 여성은 시집 잘 가서 아기 낳고 오손도손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을 들어 어릴 때 꿈은 현모양처였다. 그러나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졌고, 성격도 여성보다는 남성에 더 가깝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성이라고 가정 일반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당당하게 하고 싶지만 가정생활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일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이 가지지 못한 장점(섬세함, 부드러움,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더 잘 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 참여자 9(오 ○○, 23세, 4학년)

참여자 9는 회계학 전공인 학생으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내용은 임신, 출산, 피임법, 성폭행 대처법, 낙태에 관한 것으로 도움은 보통이었으며, 남성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해 90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과 남성은 염색체가 다르다는 생물학적인 차이뿐인데 그로 인한 영향은 대단하다고 하였다. 여성은 폐경이전까지 한달에 한번 생리로 인해 신체적 불편감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의 여성 차별로 인한 정신적 불편감까지 겪음을 표현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남을 안타까워 하였다. 앞으로 졸업한 후 취직을 해야 하는데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은 만만치 않음을 선배들로부터 들었다고 하였다. 남녀간의 월급 차이, 분만휴가가 회사의 불이익이 된다는 인식, 성 차별적인 언어,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 등 다양하다고 하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우위이다라는 것은 편견이며, 사람간의 차이는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능력 차이로 하였다. 또한 고등교육까지 받은 여성이 결혼과 함께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어른들은 결혼해서 자식낳고 사는 것이 여성의 복이라고 말하지만 여성이라고 꼭 결혼해서 아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 참여자 10(신 ○○, 24세, 4학년)

참여자는 간호학 전공인 학생으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내용은 임신, 출산, 유산, 성폭행시 대처법에 관한 것으로 도움은 보통이었으며, 여성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해 80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어머니를 선택하였으며, 무한한 사랑을 주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성은 따뜻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지만 여성 자신의 삶의 의미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비하하고 남성에게 의

존하면서 사는 것에 불만을 표현하였다. TV 광고에서 표현되는 여성들의 외형적인 미의 상품화에 거부감도 표현하였다. 며칠전 동생이 운전한 차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운전미숙으로 다른 차에 불편을 주었을 때 상대방 차 운전사의 말 '여자가 차를 끌고 나와서' 라는 성차별적인 언어에 당황하면서 할 말을 잊었다고 하였다.

일반적 구조적 기술

여대생이 경험한 여성의 의미는 <표 1>과 같다.

일반적으로 여대생 여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그들은 성장하면서 어른들에게 여성으로써 하면 안되는 것에 대해 교육받았고, 작은 사회인 대학에서도 남성을 우선으로 함을 보면서 어른들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 즉 무시와 멸시, 차별, 제재 등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당함에 억울해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당연시 하며 오히려 남성보다 많은 장점을 가진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자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여성의 상징으로 어머니를 선택하였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내는 강인함과 자신의 삶에 개의치 않고 자식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에 감동하며, 자신도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로 인한 여성의 차별은 있을 수 없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그들은 여성에게는 남성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것이 소극적인 성격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남성에게 의존적이

<표 1> 여성의 의미에 대한 중심의미와 주제

중심의미	주제	의미있는 진술
피해자가 됨	제재	'남성은 활동의 제약이 없는데 여성은 자유롭지 못하다' '여자는 다리 오므려 앉고 담배는 피우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옷차림이나 행동, 말투 등 조심하게 해라'
	차별	'남녀의 잘못이지만 결국 여자가 책임지게 되고 상처는 여자에게만 남게된다' '성교육도 남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폭행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의 전적으로 여자에게 책임이 돌아온다'
억울함	재수없음	'아침에 여자니까 누구네집에 가지마라' '장사집에 첫손님으로 가지마라' '암답이 울면 집안 망한다'
	차별	'남성과 여성 위치에서 여성은 하위에 있는 것 같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재생산이라면서 이것 때문에 받아야 하는 차별이 너무 많다' '사관학교도 여성에게 개방되지 얼마되지 않고' '남자와 동등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남자들보다 두배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여자가 집에서 뭐나 하지' '여자가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지 왜 밖에 나왔느냐'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 여자한테는 안된다고 하면서 남자한테는 공손히 대한다'
당당함	알봄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남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채용비율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한다' '여자 혼자 여행을 갈 때에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당당함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살면서 특별히 이런 점은 여자여서 나쁘다하는 것은 없었다' '여성이 장점을 부각시켜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품화가 아닌 것 같다'
	없어서는 안될 존재	'남자들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여자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다' '사회의 반이고 여성이 있어야 동물적 그런 걸로 번식되고'
당당함	동등함	'성별직업은 없는 것이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성들도 할 수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양육을 원하는 사람이면 그냥 하고 일을 원하는 사람이면 일을 하고'

<표 1> 여성의 의미에 대한 중심의미와 주제 계속

중심의미	주제	의미있는 진술
어머니됨	사랑함	'무한정한 사랑을 나누주고 바라는 것도 없다' '항상 자식을 사랑한다'
	강인함	'자식에 대한 강인함이 보인다'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이 있다'
	희생	'부정적인 면을 먼저 한다' '자기 인생도 있는데 그런 것 다 제쳐두고 가족만 생각한다'
	보좌함	'남성이 하지 못하거나 가지지 못한 것을 하는 것이다' '남자가 일을 하려면 여자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처럼'
여성스러움	보살핌	'엄마가 못참고 땡겨져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것 같다' '여자가기 보다는 아내라는 직위에 맞게 집안일하고 애들 보는 게 여자가 많이 분담하는 것 같고 그래야 될 꺼 같다' '여자와 남자가 할 수 있는일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여자는 출산같은 것, 남자는 가정의 울타리'
	섬세함	'책상 속 정리를 구분해서 잘 하고 바느질 같은 것 잘 하고' '꼼꼼하니까 세세한 것에 잘 챙기는 것 같고 성실하게 일처리 하는 것 같다'
	온화함	'아무래도 따뜻하고 편하다' '부드러움과 온순함이 있다'
	부드러움	'걸으로는 되게 강하게 보일려고 하는데 속은 여리고 부드럽다' '화부터 안내고 분위기 같은 것으로 완만하게 만들고 서로 괜찮다고 다독거리고'
	여림	'상처를 잘 받는다' '눈물이 많고 슬픈 영화를 보면 마음이 애린다'
	외형적인 미	'여자는 예뻐야 한다. 그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름다움과 연관해서 여성이라고 하면 미의 상품화하는 것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다'
	내면적인 미	'내면적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예쁜 것보다는 좋은 행동의 향기나 말투의 향기나 그런 것을 풍기는 여성이 되고 싶다'
뒤처짐	의존적이고 소극적임	'앞에서 나서지 않지만 뒤에서 챙겨주고, 뒤에 있는 것이 편하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남자가 이것저자 하면 여자는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편에 속한다'
	변덕스러움	'유행에 민감하고 빨리 받아들인다' '어딜가도 적응력이 뛰어나고 쉽게 변한다'
	지적이지 못함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여자애들이 약하다' '하나에 몰두하는 것이 약하다'

되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사고에서 차이가 남을 진술하였다.

논 의

인간의 성은 인간행위의 모든 특성 속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격체적 기능으로(Han과 Ham, 2000), 성역할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대학시절에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확고히 함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나는 평등과 불평등의 개념에서, 다른 하나는 사회적 역할 구분 개념에서이다.

먼저 평등과 불평등의 개념에서 본 여성의 의미를 보면 억울함과 당당함으로 표현되었다.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많은 제재를 받으며, 성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고, 동등한 능력에도 남성보다 뒤쳐져야 하고, 항상 구제받아야 하는 약한 존재로 표현되면서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반면 남성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며, 세상의 반을 구성하고, 종족 유지의 주역임을 자랑스러워하며, 남성과 여성은 구분일 뿐 지위나 능력의 차이가 아님을 표현하면서 여성으로써의 당당함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손색이 없음을 표현하여 여성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문화가 발전되면서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표면적일 뿐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적은 것 같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가 마련되고 각 처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없는 한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고 시행하는데 무리가 따르며, 여성이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은 사회뿐만 아니라 여성 당사자의 개인적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모님, 교육,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은 남성과의 불평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경험하면서 수용하는 자세는 여성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무색케 하며, 여성 인권운동에 걸림돌이 되고,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의 성취는 영원한 과제거리로 남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역할 구분 개념으로 본 여성의 의미는 어머니, 여성스러움, 뒤처짐 등으로 나타나 성에 대한 정체감이 전통적인 사고와 성 고정관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여대생은 남성과 여성의 할 일은 따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여성의 역할은 가정 일의 중심이 되는 어머니로 특징짓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에 지장이 있으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그들은 섬세하고 온화하며, 부드럽고 여리며, 의존적이고 소극적임을 여성의 특성으

로 표현하였고,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은 사고의 초점이 다르며, 남성에게 의존적인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여대생들은 사회의 성 고정관념과 전통적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즉 여성은 남성과 특성, 능력, 역할에서 구분되고 차이남을 인정하고, 여성 역할을 어머니 역할로 한정하며, 남성이 보는 여성의 관점에 집착하여 여성스러워야 하고, 아름답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세대인 여대생이 부모님의 기성세대와 같은 전통적인 사고를 가짐은 의외의 결과이었다. Park, Kim과 Park(1998)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 고정관념을 가정적 성역할, 직업 및 외형적 특질, 사회심리적 특질, 지적 특질, 사회적 성역할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면에서 근대적인 사고를 가짐을 진술하였다. 즉 여성은 자신의 역할이 가사노동임을 부정하고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외모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여성은 순종적이고, 모험심이 약하고, 성취욕이 약하다는 표현을 거부하며, 남성은 여성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는 표현을 부정하고, 의사결정권이나 참여권, 사회활동에 참여도 남성과 동등하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인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을 여성 역할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 연구대상자의 성장 장소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성장한 곳은 지방이면서 중소도시로 사회문화 및 교육적 발전이 뒤떨어진 환경이 이러한 생각을 더욱 더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여성 스스로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다면 올바른 정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하기는 힘들 것이다. 여성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써 인식해야 하며, 남성과 비교하기보다는 여성의 특성을 잘 살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신의 삶을 타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나 성 고정관념은 여성의 인격적 면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성을 잃게 되고(Park 등, 1998),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각한 여성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을 건강전문인에게 의존하며(Maunz와 Woods, 1998; Woods, 1985), 건강 상태(Lee, 1998)와 건강에 대한 지각도 나쁘며(Ross와 Bird, 1994), 건강증진 행위 실천율도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Suh, 1998). 정신적 건강 면에서 보면,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Seo와 Oh, 2000)과 중년기 여성(Hong, 1996; Kim, 1997)의 경우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으로 지각할수록 우울정도가 심하고, 낮은 자존심을 가진다고 하였다(Connell과 Johnson, 1970; Kim, 1997). 또한 여성은 사회에서 보는 성에 대한 잘못된 현상에

서 벗어나고 싶고 탈피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Johnson, 1982), 어려서부터 접한 이런 사회, 문화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무기력함을 배우며, 따라서 많은 우울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Seligmen, 1975).

따라서 여대생들이 가지는 성 고정관념과 전통적인 가치관은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면에 불이익을 주며, 나아가 사회와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정체감과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이 경험한 여성에 대한 생각, 의견, 가치관, 태도 등을 그들의 관점에서 의미를 규명하여 여성의 성에 대한 올바른 정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002년 2월에서 3월까지 J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10명을 대상으로 한 명 당 2회에 걸친 심층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Giorgi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여대생이 경험한 여성의 의미는 23개의 주제와 5개의 중심 의미로 확인되었다.

첫째 중심의미는 억울함으로 여기에 속하는 주제는 제재, 피해자가 됨, 재수없음, 차별, 무시, 알뜰이었으며, 두 번째 중심의미는 당당함으로 여기에 속하는 주제는 당당함, 없어서는 안될 존재, 동등함이었으며, 세 번째 중심의미는 어머니됨으로 여기에 속하는 주제는 사랑함, 강인함, 희생, 보좌함, 보살핌이었으며, 네 번째 중심의미는 여성스러움으로 여기에 속하는 주제는 섬세함, 온화함, 부드러운, 여림, 외형적인 미, 내면적인 미이었으며, 다섯째 중심의미는 뒤처짐으로 여기에 속하는 주제는 의존적이고 소극적임, 변덕스러움, 지적이지 못함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대생이 경험한 여성의 의미는 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많이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즉 여대생들은 가사노동과 가족의 보살핌이 여성의 주 역할로 보았고, 남성과의 불평등에 억울함과 부당함을 경험하면서도 남성과 경쟁하기보다는 남성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려고 하였다.

본 연구를 근거로 간호실무, 교육, 연구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실무측면에서 보면, 여성환자의 경우 남성중심의 치료적 모형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여성의 삶을 고려한 새로운 모형이 개발됨이 필요하다.

간호교육 및 연구측면에서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강의할

경우 여성의 삶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여성의 올바른 정체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대한 적용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Connell, D. M., & Johnson, J. E. (1970).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identification and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 Psychology*, 3, 268.
- Han, K. S., & Ham, M. Y. (2000).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toward sexual behavior. *J Korean Education of Nursing*, 6(1), 115-131.
- Hong, S. K. (1996). *Sex-role attitude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Hwang, E. J. (1988). *A Study on teachers' stereotyped attitudes toward sex-roles focusing on those in charge of sex education*. Master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 Johnson, P. B. (1982). Sex differences, women's roles and alcohol use : preliminary national data. *J Social Issues*, 38, 93-116.
- Kim, M. S. (1997). The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mental well-being. *Health Society Research*, 17(2), 50-73.
- Lee, S. S. (1997). A Study on sex-role attitude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elderly persons. *J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 70-85.
- Lee, S. S. (1998). A Study of couple adjustment according to sex-role attitude for the elderly wome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2), 48-60.
- Mauns, E. R., & Woods, N. F. (1988). Self-care practices among young adult women : Influence of symptoms, employment, and sex-role orientatio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9, 29-41.
- Park, S. J. (1978).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sex-role norms in Korea*. Master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Y. S., Kim, Y. I., & Park, Y. H. (1998). Sex-role identity & stereotypes of students in high school and college. *J Korean Soc of School Health*, 11(1), 51-62.
- Ross, C. E., & Bird, C. E. (1994). Sex stratification and health lifestyle : Consequences for men's and women's perceived health. *J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June), 161-178.
- Sea, S. I., & Oh, H. E.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s sex-role attitudes and depression of post hysterectomy patients. *J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4(1), 103-115.
- Seligman, M. E. (1975). *Helplessness :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francisco: Freeman.
- Suh, Y. O. (1998). Hardiness and gender role characteristics in middle-aged women. *J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2), 181-193.
- Woods, N. F. (1985). New models of women's health care.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6, 193-208.

College Women's Meaning of Women: Phenomenological Method

Yeo, Jung-Hee¹⁾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ollege women's views of women for forming an upright sex role identity and sex values.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10 college women on Jeju Island from February 2002 to March 2002.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the writer of this thesis. Each interview lasted for about 45 minute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Giorgi method. **Result:** Five main meanings were identified : 1) unfairness 2) majesty 3) mothering 4) womenishness 5) backward in capacity. In other words, women's roles are to look after their family and to take care of household affairs. Women should be beautiful and have womenish traits. Women are less intelligent than men. Women are dependent on men though they suffer from unfairness. This study presents an evidence that the traditional sex-role attitudes still prevail. **Conclusion:** In order to form an upright sex role identity and sex values, institutional programs in the society and individual efforts are needed.

Key words : Women, Phenomenolog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eo, Jung-H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1, Ara-1 dong, Jeju 690-756, Korea

Tel: +82-064-754-3883 Fax: +82-064-702-2686 E-mail: jheeyeo@cheju.ac.kr